

“어르신, 이제 누워서 불 끄세요”

나주 노안면, 누워서 전등불 끄는 무선 리모컨 보급
거동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등 100가구 대상



나주시 노안면(면장 심영조)이 이달 관내 거동 불편 주민과 고령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등 무선 리모컨 설치 및 LED전

등교체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노병학) 특화사업인 전등 무선 리모컨 설치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백여만 원을 지원 받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가구 100세대를 선정, 지사협 위원과 의용소방대원(대장 조승만), 면사무소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도 누워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리모컨 전기 스위치를 보급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안리 광곡마을에 거주하는 윤모(86세, 여) 어르신은 “허리가 굽어 걷기도 어려운데다, 전등이 노후돼 평소 많이 어두워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등교체와 무선리모컨을 설치해주시니 정말 편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함평군보건소, 장애인 문화체험 가을나들이

지체·뇌병변 장애인 52명 대상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병희)는 지난 12일 지역 내 지체·뇌병변 장애인 52명을 대상으로 가을 문화체험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지역 내 위치한 우송도예공방과 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도자기 빚기 체험, 감 따기 체험 등을 함께하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이날 체험활동에는 호남대학

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마사지건, 스포츠테이핑 등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 방문서비스, 수중재활운동교실 등 다양한 장애인 재활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가족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생산·소비 뛰어넘는 ‘세종형 사회적농업’ 모델 만든다

세종시는 세종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생산과 소비 중심의 농업을 뛰어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14일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애인단체, 세종로컬푸드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연동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두레농장에서 일손을 돕기로 했다.

또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한편 누리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두레농장 외부 노지는 세종시장에 인부모회가 장애 가족 치유텃밭을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두레농장은 5연동 하우스에서 파프

리카와 고구마 등 재배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간 500여명의 장애인과 누리학교 학생 300여명이 농산물 재배 체험에 참여한다.

두레농장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톨립 등을 심심장터와 학교 공공급식 등에 우선 납품하게 된다.

수익금은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나머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환원사업비로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기관별 실무협회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업무협약 이행 등을 점검한다.

앞서 시는 그동안 사회적농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심심장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해 지난 9월 말까지 197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학생들이 두레농장에서 수학 체험을 하고 있다.

농가 참여수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937호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준희 세종시장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종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역사회보장협 청각장애인 가정에 ‘안전한 빛’ 선물

12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가 저소득 중증 청각장애인 가정 7세대에 집박 손님 방문 알림, 응급상황 감지 등 기능이 있는 초인등을 설치했다.

김동일 수완동 지사협 위원장은 “초인등 보급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인들의 주거복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의 복지 욕구를 잘 살피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초인등은 방문객이 집 밖에서 벨을 누르면 실내등이 깜빡이며 외부



상황을 알려주는 장치로 화재 대피 등 응급상황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임형택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